

패션프루트·망고·구아바·파파야... 전남, 열대과일 농사 활발

39농가서 재배 ... 패션프루트 25농가로 가장 많아 재배 지역 북상 지난해 전국 264농가 1174t 생산

지구 온난화는 분명 위기이지만 새로운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 한반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전남지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파파야 등 열대과일 농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최근 열대과일 수급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열대과일 재배 면적은 106.6ha, 재배 농가는 264호로 집계됐다.

106.6ha(1.066km²)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37% 규모다. 아직 재배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각각 전년(58ha·174호)보다 83.7%, 51.7% 늘었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의 경우 망고(9농가), 패션프루트

(25농가), 구아바(2농가), 파파야(3농가) 등의 열대과일이 재배되고 있다.

국내 수입과일 수요 증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작목 발굴, 지자체 고소득 작목 육성 등으로 열대과일 재배면적이 늘어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열대과일 생산량은 전년(769.6t)보다 52.5% 늘어난 총 1174.1t이었다. 품목별로 패션프루트가 408.7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고 398t, 파인애플 167t, 용과 86t, 파파야 62.9t, 바나나 32t, 구아바 15.5t, 아페모야 4t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제주에서 열대과일을 가장 많이 재배하지만 열대과일 재배 지역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망고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재배농가(174호) 가운데 절반(86호·49%)이 제주 농가였으나 작년에는 제주 비율이 33.3%(88호)로 낮아졌다.

경북(20.8%), 경남(15.2%), 전남(14.8%) 등지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2014년 열대과일 재배 실적이 없었던 대구, 부산, 전북, 충남, 충북 등에도 지난해 신규 열대과일 농가가 등장했다. 망고 농가는 제주(60개)에 가장 많고



패션프루트

패션프루트 농가는 경북(52개), 전남(25개), 전북(22개) 등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2001년 망고 재배를 시작한 제주에서는 이제 망고 농사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 수입 급증으로 국내 바나나·파인애플 농가 대다수가 문을 닫은 점을 교훈 삼아 열대 과일 재배를 위한 신규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1980년대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나나



구아바

나와 파인애플 재배 농가가 급증했으나 199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 자유화로 대부분 농가가 폐원했다.

바나나는 198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배해 1990년에 재배면적이 440.2ha, 생산량이 2만1770t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 재배면적은 1ha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열대과일 재배는 초기 투자비용과 난



파파야

방비 등 유지·관리비 부담이 크고 아직 재배기술 연구·보급이 취약한 편이다. 생산 물량이 적어 본격적인 거래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다.

제주도와 경남·전남 남부 지역은 기후가 아열대화해 시설 재배 등으로 열대과일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아직 다른 지역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낮아 열대과일을 재배하려면 가온 시설이 필요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농협 전남지역본부 착한먹거리 체험단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벼 수확 체험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산물 직접 수확하고 요리 실습도 하고

농협 전남본부 '착한먹거리 체험단' 다음달 추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30일 "도시민의 올바른 식생활개선과 우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건강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착한먹거리 체험단'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농협이 초·중·고생, 주부, 도시가족 등을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농촌마을에서 농산물 수확 및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

실습 등을 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단 구성은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교육과 요리실습이 가능한 어린이체험단 ▲도시 주부(소비자)들이 산지농가에서 농산물 수확체험 후 직거래로 구매하는 주부체험단 ▲주말 가족나들이와 접목한 가족체험단 등이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착한먹거리 체험

단' 4500여 명을 모집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 해는 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경 본부장은 "'착한먹거리 체험단'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판매 1조3500억 ... 7.5% 증가

전문점·생협 등 판매장 확대로 소비자 접근성 높아

소비 심리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와중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식품신유통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식품 소매 판매장은 전년보다 7.7% 늘어난 5366곳, 판매액은 7.5% 증가한 1조3500억원이었다.

지난해 유통 채널별 매출은 생협·전문점 등 친환경 전문업체 8051억원, 할인점·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4933억원,

농협 계통 매장 537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증가한 이유로 친환경농식품 전문점, 생협 등이 판매장 개설을 확대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2014년과 비교한 친환경농식품 판매점 수 변화를 보면 생협 556→624개소, 전문점 623→724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1159→1249곳 등으로 늘었다.

또 청과류 이외에도 축산, 수산, 가공

식품, 생활용품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생협 기준 부류별 취급 비중을 보면 양곡(7→6.5%)과 과일(22.5→21.4%)은 줄고, 축산(21.2→21.9%)·수산(9→9.2%)·가공식품(34.4→34.8%) 등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광역단위 산지 전문유통 조직 설립, 온라인·직거래 판매 확대 지원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71억 지급

해수부, 다음달부터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대상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시·군·구를 통해 수산 분야 201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다.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1109명

에 총 71억6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입력이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자에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급하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으나 수산 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나왔다.

해수부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하면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2016년 사업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지원 품목 선정 과정에서 어업인 이익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어업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굿모닝타운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카페, 미용실, 병원 적합

- 전용 289㎡ (87평) 2/3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 (대출 5억) 실 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대출 20억) 실 투자 6억5천만원

무인텔 매매

화순 도곡 온천관광 단지내
최근 올리모델링, 성업중

- 객실 28개 및 내 외부 올 리모델링
- 매 23억 (대출 14억5천) 실 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사육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